

생활지도



학생 선택을 존중하는 생활 지도 시스템

진화된 벌점제도 ‘다함성 프로그램’

(다함께 성장하고 성찰하는)

글 | 김정식 경기 이천중학교

생활지도에 '모든 교사들이 합심해서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말은 패잔병들에게 다시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말과 같다. 사기가 꺾인 교사들에게 다시 열정을 복돋아줄 시스템이 필요했다. 이에 본교에서는 2013년부터 선택설계학을 바탕으로 한 '다함성(다함께 성장하고 성찰하는)'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게 함으로써 갈등을 줄이고 교육적 효과도 높일 수 있는 다함성 생활지도 방법을 소개한다.

선택설계학

휴지통을 농구 골대 모양으로 색칠하고 조금 높게 달아놓았더니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바닥에 떨어진 빈 캔이나 휴지를 주워 휴지통에 던져 넣어 주변에 떨어진 휴지가 없어지더라는 이야기나 학교 급식실의 반찬 배치만 바꾸어도 맛있는 반찬 소모량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는 선택설계학을 적용한 유명한 일화이다.

2009년 베스트셀러였던 '넛지'라는 책을 통해 대중 사이에 많이 알려지게 된 선택설계학. 이 책에서 저자는 사람들은 완벽한 선택을 하는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며, 종종 선택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약간의 요소를 가해주면 삶의 질이 높아지고, 사회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교에서도 '교사의 강요가 아닌 학생들의 올바른 선택에 의한 생활지도 시스템'의 필요성을 느끼고 선택설계학을 응용한 '다함성(교사와 학생이 다함께 성찰하고 성장하는) 생활지도' 프로그램을 만들어 적용하였다. 2013년 1년간 운영한 결과 학생들의 기초질서 정착, 학업성취도 향상, 교사 학교 근무 만족도 증가 등 학교 전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기존 생활지도 문제점

학생들의 기본생활습관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 쉬는 시간, 점심시간은 물론 수업시간 까지도 통제가 어렵다. 신규교사들 수업컨설팅을 들어가보면 일부 학생들의 문제행동만 두드러져서 수업내용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일부 학생들의 문제행동에 동조하는 학생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학급 분위기는 엉망이 되어 갔다. 교무실에서 학생을 훈계하는 교사들을 보고 있으면 지도를 하는 것인지 학생과 말싸움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학생들의 예의범절도 무너져 가고 있다. 또 신념을 갖고 강력한 지도를 하던 교사들이 경찰에 신고당하면서 교사의 사기도 바닥까지 떨어져 버렸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자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우선 '학생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효과적인 생활지도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많은 학교들이 대안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상벌점제도(그린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 교사들은 '그래도...'라며 긍정적 측면을 인정했다. 이에 상벌점제도(그린마일리지 제도)를 수정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일단 전 교사를 대상으로 '상벌점제도가 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가'에 대해

설문지를 받아 정리했다. 그 결과 교사들이 별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아래와 같이 7가지 정도로 압축되었다.

- 별점카드 휴대가 불편하여 잘 가지고 다니지 않게 됨
- 볼펜이 없는 경우 별점을 주려면 교무실로 데리고 와서 귀찮음
- 별점을 주고 난 후 사후 처리가 복잡하고 별점 받은 학생을 담임에게 알리기가 귀찮음
- 학생들의 불손한 태도로 학생과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함(가장 큰 문제)
- 별점을 받아도 그때 뿐이고 학생들의 행동 변화가 나타나지 않음
- 수업시간에 사용 못함(교사지시 불이행은 별점이 8점으로 너무 커서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함부로 별점 주기가 어려움)
- 별점을 받아도 학생들이 무서워하지 않음(별점이 쌓여 교내 봉사하는 학생들이 오히려 쓰레기 봉투를 들고 학생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복도나 교단을 활보하며 다님)

다함성 생활지도(다함께 성찰하고 성장하는 생활지도)

교사들이 제기한 문제에 기초하여 해결책을 만들기 시작했다. 만들어진 해결책은 선생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그리고 제시된 해결책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지는 않는지, 이 제도로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되지는 않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작은 효과를 보기 위해 교사들의 업무가 무리하게 가중된다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생 뿐 아니라 교사들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했다. 이렇게 해서 아래와 같은 다함성 생활지도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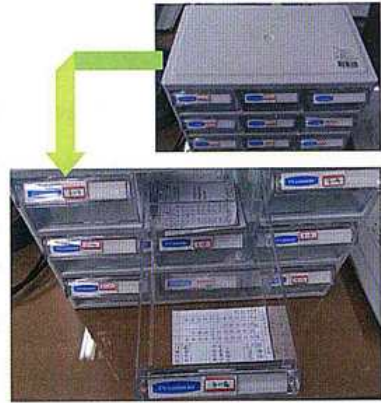
사이즈 개선 _ 우선 휴대하기 불편한 별점카드 크기를 줄여 교사들의 명찰이나 지갑에 쉽게 넣어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제작했다.



기록방법 개선 _ 볼펜이 없어도 별점을 줄 수 있게 학년 반 번호를 적는 란을 OMR카드 형태로 제작했다. 볼펜이 없어도 손톱으로 누르거나 핀으로 구멍을 뚫어서 표시하도록 하여 잘못된 행동을 발견하는 즉시 별점부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교무실에 와서 자국 표시를 보고 볼펜으로 다시 학년 반 번호, 별점을 적어 별점통에 넣으면 된다.

개선 3

사후처리 단순화 _ 별점을 주고 난 후 사후처리를 단순화하기 위해 학년별로 별점 카드통을 만들어 교무실에 비치했다. 별점을 발급한 교사는 별점카드를 학년 교무실에 마련된 별점통에 넣기만 하면 된다. 방과 후 별점 담당 교사가 별점카드를 수거하여 일괄적으로 입력하고 보관 처리하기 때문에 사후처리가 단순화 되었다.



개선 4

별점 감면 및 가중제도 _ 우리학교 별점제도의 핵심이다. 별점을 주고 난 후 학생이 잘못을 인정하면 별점을 1/2로 줄여준다. 반대로 교사에게 반항하거나 불손한 태도를 보일 때는 별점이 2배가 된다. 그 결과 학생들은 일단 별점이 부여될 때 자동으로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교사와의 빈번한 갈등도 해소되었다. 생활지도가 정착된 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예전에는 문제 학생들이 교사에게 혼나더라도 반항을 하면 영웅시되던 분위기에서, 이제는 지적을 받았을 때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분위기로 학교가 변하기 시작했다. 물론 사전에 새로 바뀐 제도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개선 5

이의제기 제도 마련 _ 또 하나 특별한 점은 별점을 받은 것이 억울한 경우 이의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혹시 교사가 잘못 보고 별점을 부여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학생이 잘못을 인정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억울한 경우에는 학년부장 교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주고 있으며 이는 별점카드에도 명시해 놓았다. 이 제도의 장점은 억울하더라도 교사 앞에서는 불손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물론 교사 앞에서 불손한 태도를 보이고 별점을 2배로 받는 것은 학생의 선택이다). 시스템에 의해 학생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잘못을 인정하라고 강요하지는 않는다.

개선 6

발급 절차 간소화 _ 별점을 준 교사가 담임교사에게 별점부여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해당학생이 직접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도록 개선했다. 새로 제작된 별점카드는 다음 페이지의 그림과 같이 절취선이 있어 교사가 별점을 부여할 때 우측 딱지를 학생에게 잘

라 주도록 되어있다. 딱지를 받은 학생은 종례시간 이후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3일 안에 담임교사의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벌점은 2배가 된다. 종례시간 이후에 제출하도록 한 이유는 학생이 딱지를 보관하고 있는 동안 계속 보면서 반성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심지어는 주변 친구들에게 자신이 받은 벌점을 보여주며 이야기하면 자연스러운 홍보 효과도 가져 올 수 있다. 또 방과 후에 담임교사에게 딱지를 제출할 때 한 번 더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학생이 스스로 딱지를 가지고 담임교사에게 알리고 지도를 받게 되는 과정이 강요가 아닌 학생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다. 마찬가지로 학생이 싫다면 벌점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개선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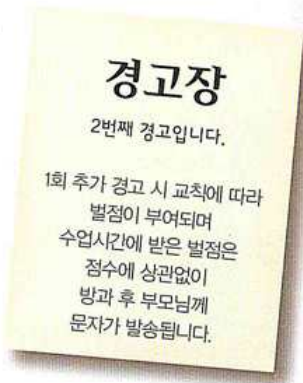
수업시간 벌점 부여 개선 _ 다함성 생활지도를 만들면서 가장 염두에 두었던 것은 수업 시간만큼은 교사가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수업시간에 교사지시 불이행 벌점이 8점이었던 것을 2점으로 하향조정하였다. 학생이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 감면되어 1점만 부여되기 때문에 2점은 최하점이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큰 부담 없이 학생들에게 수업시간에 벌점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절취선 기준으로 우측 딱지는 학생에게 찢어준다.

〈(상/벌)점 카드〉				이름	날짜	날짜	학번	이름	벌점	
①	①	①	①	사 유	사 유	실내·외화 구분	실내·외화 구분	□ 수업여부	②	
②	②	②	②						③	
③	③	③	③						④	
④	④	④	④						⑤	
⑤	⑤	⑤	⑤						⑥	
⑥	⑥	⑥	⑥						⑦	
⑦	⑦	⑦	⑦						⑧	
⑧	⑧	⑧	⑧						⑨	
⑨	⑨	⑨	⑨						⑩	
⑩	⑩	⑩	⑩						⑪	
⑪	⑪	⑪	⑪						⑫	
<집중단속> • 실내화미착용 • 수업방해 • 복장불량				담임선생님에게 당일(종례시간) 제출 제출안하면 벌점 2배 (벌점 누계 5점 단위로 성찰교실 입소 벌점 누계 20점이면 선도위원회 회부) 수업 시간 벌점은 당일 부모님께 문자발송 벌점부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학년부장님께 이의를 제기하여 벌점여부를 재확인 받을 수 있음.				⑬		
□ 수업여부				□ 잘못인정 ½				□ 불손태도2배		⑭
교사:				□ 불손태도2배				□ 잘못인정 ½		⑮
				발급교사						⑯

개선 8

구두경고 → 경고장 발급 → 벌점부여 및 부모님께 문자 전송 _
 수업시간 만큼은 학생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떠들어서 벌점을 부여받은 학생 대부분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나만 떠든 게 아닌데 억울하다'며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따진다. 따라서 학생들이 수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다. 교사들과 상의 끝에 '1차 구두경고, 2차 경고장 발급, 3차 벌점 부여'로 수업 중 벌점부여 방법을 통일시켰다.



오늘 수업시간 방해로
 교과선생님께 의해
 벌점이 부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O중-



부모님께 발송되는
 문자내용 (80자)

핵심은 2차 경고장 발부이다. 경고장을 발부한다는 것은 벌점을 부여해야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의미이다. 주변의 다른 학생이 떠드는 것과 관계 없이, 경고장을 받은 학생은 같은 잘못을 반복했을 때에 벌점이 부여된다. 이렇게 바로 벌점을 부여하지 않고 '경고장'을 발부함으로써 교사와 학생 간의 마찰을 줄이고 수업시간에 발부되는 벌점카드도 상당히 줄어드는 등 학생들의 행동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수업시간에 부여된 벌점에 대해서는 방과 후에 철저하게 부모님께 문자가 발송되도록 하였다.

개선 9

성찰교실 자진 입소제도 _ 학생들이 벌점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벌점을 받아도 학교에서 별다른 처벌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벌점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성찰교실을 운영하였다. 벌점이 5점이 되면 강제로 성찰교실에 입소하도록 했다. 하지만 벌 받으러 들어오는데 성찰교실 분위기가 좋을 리가 없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성찰교실 자진 입소제이다. 5점이 되기 전에 성찰교실에 자진해서 입소하면 1번 입소할 때 마다 벌점을 1점씩 상쇄시켜 준다. 그 결과 성찰교실 자진 입소자가 늘기 시작했다. 또 스포츠클럽과 연계해서 벌점 3점 이상인 학생이 반 대표로 대회에 출전하는 것을 제한하였더니 학생들을 다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성찰교실에 자진 입소하는 학생이 늘어났다. 이 또한 학생들이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비밀번호]